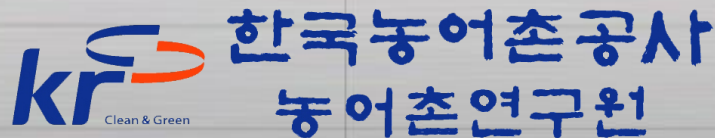


# 청년창업농은 “어떻게” 농지를 확보하여 이용하고 있는가?

이 향 미  
2018. 12. 15



# CONTENTS

1. 서론
2. 신규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 검토
3. **청년창업농** 선정 농가의 특징
4. 청년창업농의 농지 확보 방법과 이용실태
5. 청년창업농 농촌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농지지원 개선방안

# I. 서론

## 왜 농촌지역 재생산을 위한 농업인력 확보가 중요한가?

-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 : **1987년 1.00%**, **2015년 0.53%**, **2032년 0.00%** ⇒ **2033년 -%**
- 우리나라 고령화율 : **1987년 3.9%**, **2015년 13.2%** ⇒ **2050년 37.4%**
- 향후 15년 이내 절대적 규모의 인구 수 감소 전망
- 신규 취농에 대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2025년 농업노동력 32.8만 명 부족 예상

### » 농촌지역 존립의 문제 : **한계(限界) 마을**

- 농림업종사 인구 연 평균 1.5%씩 감소, 농가인구 연 평균 2.3%씩 감소
- 총 인구 중에서 농가인구 비중 : 1990년 15.5% ⇒ 2015년 5.0%
- 농촌지역 과소화·고령화 문제는 '지역' 존립 여부의 문제

### »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수립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등에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 우대 및 선발
- (단일 영농 경영체 육성 ⇒) 지역 육성 품목 기반 다양한 영농활동을 하는 복합영농 경영체 육성
- ✓ 6차산업은 실질 농업소득 하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 공적 개입을 통한 청년창업농 농지 지원 필요성

마을 존속 한계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중의 고통

초고령화된  
농촌지역

농촌지역 일자리는  
소득창출과  
지역사회 유지 근간

- 농촌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다변화
- 신규 인력의 유입을 통한 농업인력 재생산 구축
-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정부, 각 지자체)에서 수요자 맞춤형 농지 지원 간과
- 영농정착을 통한 농산업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농지지원
- **농지은행사업과 연계**

## 1.2

## 이번 발표에서는

## 공적 개입을 통한 청년창업농 농지 지원 필요성

연령별	전체		쌀전업농		일반농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합계	196,421	100	60,025	100	136,396	100
<b>만 40세 미만</b>	<b>13,514</b>	<b>6.9</b>	<b>3,734</b>	<b>6.2</b>	<b>9,780</b>	<b>7.2</b>
40대	32,285	16.4	12,720	21.2	19,565	14.3
50대	68,561	34.9	30,427	50.7	38,1	28.0
60대	47,500	24.2	12,316	20.5	35,184	25.8
70세 이상	34,561	17.6	828	1.4	33,733	24.7

주 :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임차자 196,4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자료 : 농지은행처 내부자료(2018)

<표 1.1>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자 연령 분포

지역내 농지 임차 물량의 대부분은 중장년층에게 매칭되고 있음

## 공적 개입을 통한 청년창업농 농지 지원 필요성

구분	일본 신규 취농자	구분	우리나라 귀농 농업인	우리나라 귀촌 농업인
농지 확보	70	영농 기술/경험	33.4	22.5
자금 확보	64	농지 및 시설 투자 자금	33.2	44.3
영농기술 습득	56	재배 품목의 판로	9.2	0.0
주택 확보	26	건강/체력(과다한 노동량)	5.9	23.8
상담 창구 확보	19	운영비	11.5	0.0
가족의 이해	14	높은 가격 변동성	6.8	0.0
지역 선택	20	천재 지변(홍수, 가뭄 등)	0.0	4.9
		가족과의 갈등	0.0	4.5

주 1 : 일본의 신규 취농자는 경영주의 '연령' 제한 없이 전체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함

2 :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농업인은 '만 40세 미만'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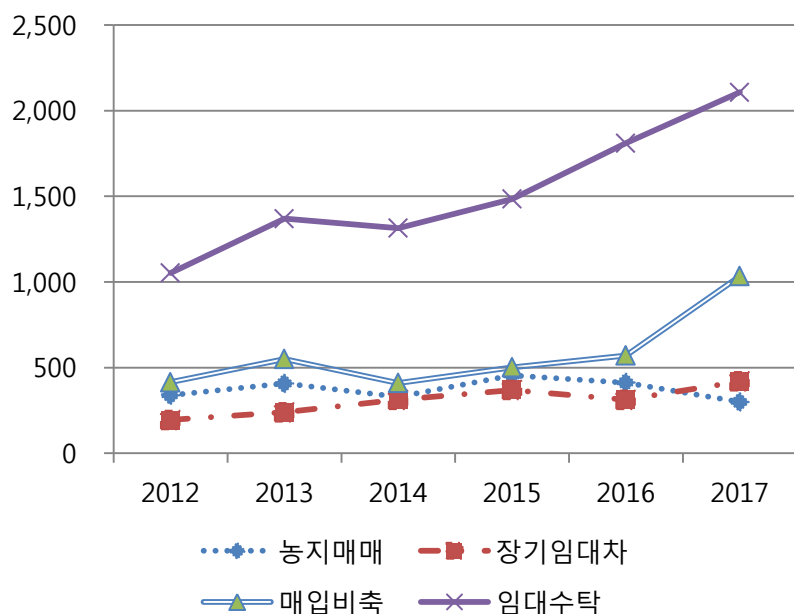
자료 : 全国農業會議所 全国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 1.2

## 이번 발표에서는

■ 농지은행사업 전체 사업 물량 중에서 2030세대 지원 비중 및 지원 면적 매년 증가

- (2012) 14.7%(2,030ha) → (2013) 19.6%(2,602ha) →
- (2014) 18.1%(2,419ha) → (2015) 20.9%(2,903ha) →
- (2016) 20.5%(3,187ha) → (2017) 24.2%(3,859ha)



- 그간 쌀 위주의 정책지원으로 쌀 공급 과잉
- 현재 쌀 생산조정제 참여 신청 '매우' 저조
- 2030세대 농지지원 역시 논에 집중
- 매입비축한 농지보다 임대수탁 지원 집중
- 이제는 논 위주에서 밭으로 농지 지원 확대 필요
- 청년농업인 및 청년창업농의 농지수요 파악하여 맞춤형 농지 지원 필요

<그림 1.1> 사업별 2030세대 농지지원 실적



## **II. 신규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 검토**

## 2.1

## 신규 경영체 개념 정립

■ 창업농 : 새롭게 농가를 창설하는 농업인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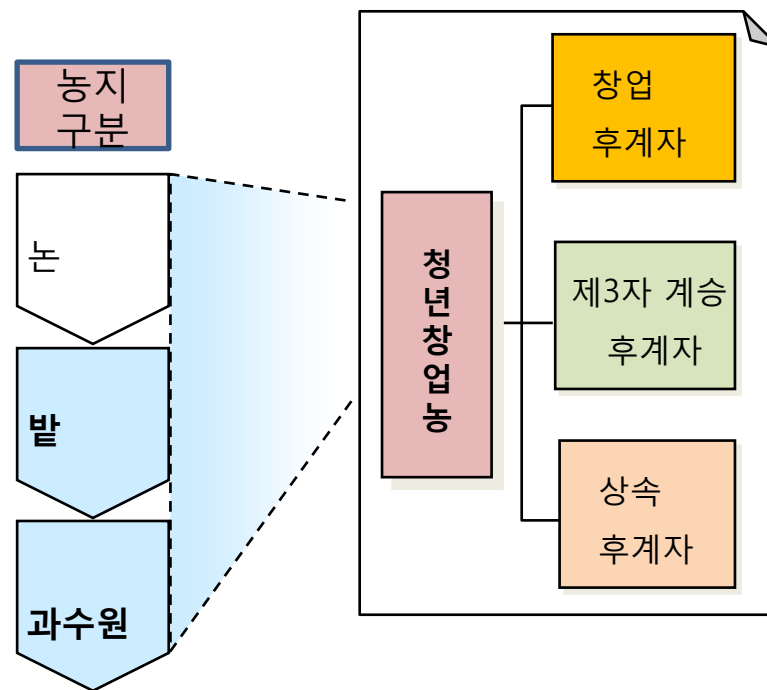
단계 구분		정의
예비	잠재기	농업에 대해 흥미, 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농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교양과목으로 농업과목 이수자 또는 농가 출신자
	탐색기	농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탐색중인 사람
	계획기	농업인이 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반 여건을 준비 중인 사람
초보	개시기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사람
	재구조기	영농경력이 4~7년 정도로 취농 시작기의 영농구성을 재조정하거나 구조화하고 있는 사람
	정착기	농업경영, 시장확보, 기타 생활 등에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든 농가

<표 2.1> 창업농 단계

## 2.1

# 농업경영체의 유형

비전	농업 체질개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형	전문농 (예비전문농 포함)	창업농	일반농 (6차농 포함)	고령농
목표 (16→25)	전문농 (174→190천호)	청년 창업자 (10천호)	조직화 다각화 인원 (12→45천호)	경영이양 비율 (3→10%)
프로 그램	전문농 프로그램	창업농 프로그램	일반농 프로그램	고령농 프로그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6.23)

<그림 2.1> 농업경영체 유형

##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

- 농업계 학교 육성정책(한국농수산대학교 포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
- 귀농귀촌 지원정책
- (박근혜 정부)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창업농 정착 지원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자금 지원)
- 귀농인 창업지원
- 농신보 신용지원
- **2030세대 농지지원**
-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 **(문재인 정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30세대 농지 지원 사업

## 2.2

## 국내 신규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 검토와 그 시사점

## “정예 농업인력”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
청년 창업형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78.1.1. ~ 2000.12.31. 출생자)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67.1.1. ~ 2000.12.31. 출생자)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면 접수

&lt;표 2.2&gt; 2018년 정예 농업인력 육성 정책

##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강원도	경상북도	강원도 양구군
조례명	•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還)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일자	• 2017년 7월 7일	• 2016년 5월 26일	• 2017년 2월 22일
연령 제한	• 만 18세 ~ 45세까지	• 만 18세 ~ 40세미만	• 만 19세 ~ 만 40세

&lt;표 2.3&gt;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광역지자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1. 강원도 : 청년 취업농 지원 ※ **청년창업농 팜쉐어 지원**
2. 경기도 : 2018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3. 충청남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4. 전라남도: 2018년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5. 경상북도: 2018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6. 경상남도: 2018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우 조직 법인에 취농형태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농지지원 우선 지원 방안 도입 검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 1980년대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영농후계자 부족의 문제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

- 창업기반조성비용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리 3% 금리)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재무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규모 확대효과</li> <li>• 농업 조수입 및 소득 증대 효과</li> <li>•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비용편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부채 증가, 높은 임대 농지 비율</li> <li>• 경영관리능력 부족 인식자 비율 72%</li> <li>• 재도약 실패 경험 농가비율 68%</li> </ul>
비재무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전정신, 자신감, 농업발전 자존감 증대</li> <li>• 활발한 사회활동과 지역발전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사업관련 정보 취득</li> <li>• 소통공간의 부족</li> </ul>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후계농 1% 증가시 지역농업노동생산성 0.3% 증가</li> <li>• 2007년 이후 영농정착 비율 95%, 선발된 후계자의 65% 창업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농 취소 사유: 전출, 농외취업, 자금 미대출</li> <li>• 인적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li> </ul>

자료: GS&amp;J 인스티튜트(2016)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수립 근간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등에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 우대 및 선발
- (단일 영농 경영체 육성 ⇒) 지역 육성 품목 기반 다양한 영농활동을 하는 복합영농 경영체 육성

구분	연령	경영 규모	영농경력	지원내용				우선 순위
				농지매매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18~39	-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1
			2년 초과		1ha 이내			
2030 세대	20~39	2ha 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2
		2ha 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4ha 이내	4ha 이내	

<표 2.5> 청년창업농 영농경력별 농지 지원 내용



## 일본의 신규 취농진입자에 대한 지원정책

구분	취농준비	취농 개시		경영확립
		법인 정직원 취농	독립·자영 취농	
소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취농 자금지원(준비형)</li> <li>현(縣) 농업대학교나 선도농가선도 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관련 고용사업 법인에 취직한 청년에 대한 연수경비</li> <li>고용한 취농자의 법인설립·독립에 대한 연수에 필요한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취농 자금 지원 (경영개시형)</li> <li>'인력·농지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인정신규 취농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파견연수의 경비</li> <li>선도 농업인을 지향하는 경영자 육성을 위한 지원</li> </ul>
기술경영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자육성교육 레벨업</li> </ul>			

&lt;표 2.6&gt; 일본의 취농 종합지원 정책

## ■ 일본 '농(農)의 고용사업'

- 고용 취농자 육성유형 : **농업법인** 등이 취농 희망자를 고용할 경우 실무 연수 등을 지원
- 차세대 경영자 육성유형: **농업법인**에서 그 직원을 차세대 경영자로 육성할 경우 연수 활동 지원
- 2017년부터는 **해외 농업법인** 연수도 지원 대상

## »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농업인력으로 육성
- 지역내 **농지 이용**과 **신규 경영체 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방안 수립 필요

## 일본의 '제3자 계승'의 주요 특징과 사례

<p>농업 경영 상속에 관한 합의서</p> <p>○○○○ (이하 "갑"이라한다)과 ○○○○ (이하 "을"이라)은 갑이 갖는 사업 자산을 다음에 따라 乙에게 상속한다.</p> <p>1 상속 자산의 내용</p> <p>(1) 유형 자산</p> <p>*농지 (논: 자기 소유지 ○○ha, 임차 ○○ha, 밭: 자기 소유지 ○○ha, 임차 ○○ha)</p> <p>*하우스(철골 유리 하우스 ○○㎡)·축사(목조)·창고(경량 철골 ○○㎡)·기계 (트랙터 50마력, 이앙기 5조 및 콤바인 등), 과수(포도 ○○ha)</p> <p>*가축(비육 소 ○○두, 육성 소 ○○두, 낙농 착유 소 ○○두, 육성 소 ○○두)</p> <p>(2) 무형 자산</p> <p>*재배 기술 (채소 수량 ○kg / 10a 등)·사육 기술(유량 ○○kg / 년 등)·판매처 (생협, 슈퍼, 인터넷을 통한 판매 판매) 등</p> <p>2 계승의시기와 방법</p> <p>*헤세이 ○○ 년 ○○ 월 ○○ 일부터 헤세이 ○○ 년 ○○ 월 ○○ 일까지는 갑과 을이 공동 경영하고, 갑은 을에게 매월 ○○ 원을 급여로 지급한다.</p> <p>*헤세이 ○○ 년 ○○ 월 ○○ 일보다 을이 경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 시점에서 갑 경영 자원을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p> <p>(1) 유형 자산</p> <p>① 농지</p> <p>*갑의 자기 소유지는 대차로 임대료는 농업위원회가 정보 제공하는 실세의 차임을 참고하여 정한다. 대차 기간은 ○ 년으로 한다.</p> <p>*차입지는 권자의 동의를 얻어 을이 명의의 이용권을 설정한다.</p> <p>② 시설</p> <p>*하우스는 ○년(갑가 상각 잔존 기간) 임대하고, 임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p> <p>*창고 ○ 년 임대료 리스료는 ○○ 년으로 한다. 리스 만료 후 을에게 무상 양도한다.</p> <p>③ 기계</p> <p>*대형 기계(트랙터 등)는 ○년 임대 (리스료 년 ○○원)으로, 임대 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양도한다.</p> <p>(2) 무형 자산</p> <p>*갑은 경영 이양 후에도 ○년간 기술경영·영업 관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을은 갑에 대하여 지도료를 포함 해 급여로 매월 ○○원을 지급한다. 직원은 계속 을이 고용한다.</p> <p>3 이상 급여는 매년 ○ 월 말일까지 실시한다.</p> <p>4 해약</p> <p>*갑 및 을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 위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p> <p>○○ 년 ○○ 월 ○○ 일</p> <p style="text-align: right;">(갑) ○○ 현 ○○ 군 ○○정 ○○○○ ○ (을) ○○ 현 ○○ 군 ○○정 ○○○○</p>	<p>■ 경영이양희망자의 조건</p> <p>① 후계자가 없고, <b>향후 5 년 이내</b>에 경영의 일부 또는 다른 사람은 전부를 중단 할 의향이 있음</p> <p>② 농업 경영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의지가 있음</p> <p>③ 상속 희망자에 대한 <b>농업 기술, 경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b></p> <p>후계자로 육성 할 의지, 능력 있을 것</p> <p>④ 상속 희망자에 대해 자산 (부채 포함) 상황을 포함한 <b>경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지</b></p> <p>⑤ 상속 경영 내용이 계승자가 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b>연간 농업 소득 300 만엔 정도</b>)</p>	<p>■ 경영상속희망자의 조건</p> <p>① 현재 <b>스스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45세 미만인 자</b></p> <p>② 본 사업과 관련된 이전에 이양 희망 농가(농업 법인)이고, 정직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p> <p>③ 경영자로서의 취농 의욕, 경영 이양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을 계승하고, <b>지역 영농의 의욕있는 농업인이되는 것 지향</b></p> <p>④ 법인이 아닌 것</p>
---	--	---

&lt;그림 2.2&gt; 일본의 제3자계승 합의서

&lt;표 2.7&gt;&gt; 일본의 경영이양희망자와 경영승계자의 조건

## 일본의 '제3자 계승'의 주요 특징과 사례

## 법인 설립을 통해 경영 상속을 원활하게(北海道 : 낙농) 이양자 : I 씨, 계승자 : A 씨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I 씨는 2009년 이전부터 낙농 도우미와 아르바이트사이트에서 목장을 방문했던 A 씨에 이양 결의

A 씨 90 %, I 씨 10%의 출자금을 부담한 목장을 주식회사 설립

3년간은 I 씨가 대표 이사를 역임 한 후 2013년에 A 씨가 대표 이사로 취임하고, I 씨는 이사로 계속 회사에 체재, A씨는 자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정성스런 협의 의향의 차이를 해소(佐賀 : 벼·귤) 이양자: H 씨, 계승자: N 씨

취농하고 싶어서 직장을 은퇴한 N 씨는 벼 농사와 차 만들기에 대해 3년간 연수 받음

2012년에 H 씨와 만나 경영 상속을 위해 훈련을 시작함

2013년에 논·과수원 경영을 계승. 처음에는 농지와 기계의 매도 금액에 의향의 차이가 있었지만, 회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해소함

## 취농 지원자금을 활용한 일괄 양도상속(鹿児島 : 샐러드 시금치) 이양자: U 씨, 계승자: Y 씨

샐러드 시금치의 수경 재배를 실시했던 U씨와 농업대학교에서 연수를 쌓은 Y씨를 현 농정 보급과 소개로 알게 되었음

반 년간의 연수 후 취농 지원 자금(현재 청년 등 취농 자금)을 이용한 일괄 양도 2010년에 경영을 계승

현재는 Y 씨가 순조롭게 경영을 하고 있음. 농지, 시설뿐만 아니라 기술과 판로 등 무형 자산 상속이 성공의 요인이 되었음

## 미국의 신규 취농진입자에 대한 지원정책

### 미국의 토지연결(Land Linking) 프로그램 개요 및 실태

- 새로운 농민과 은퇴 한 토지 소유자를 연결하는 것
- 새 세대와 은퇴 세대 조화 (⇒ 소규모 농장의 유산 유지, 좋은 경관 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상호 이익)

### Land Seeker 등록

- 캘리포니아 Farm Link에서 Land Seeker가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 (**연간 15 달러 등록비**)
- 토지 기회를 보고, 토지 소유자에게 접근 할 수 있음
- 교육, 기술 및 경험을 시연하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음
- Land Seeker Profile Form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 수신
- 등록 된 다른 사용자가 내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농민의 세부 정보는 해당 농민의 목표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WHAT ARE YOU LOOKING FOR?



#### Farmers & Landseekers

I would like to register to contact landholders, post my profile, or receive business assistance.

[Learn More](#)



#### Landholders & Farm Succession

I would like to register to list land or get help with farm succession.

[Learn More](#)



#### Loans

I would like to inquire about receiving a loan from California FarmLink.

[Learn More](#)

What kinds of services and assistance are of interest to you?

<input type="checkbox"/> Finding land	<input type="checkbox"/> Developing or reviewing a lease
<input type="checkbox"/> Access to capital	<input type="checkbox"/> Business health assessment
<input type="checkbox"/> Finding a tenant or business partner	<input type="checkbox"/> Land and business transition planning

Registration Amount

☒ \$15 One-year registration

☒ \$35 Add my \$20 contribution

☒ \$50 Add my \$35 contribution

☒ \$100 Add my \$85 contribution

☐ Other

<그림 2.3> 미국 캘리포니아의 Farm Link 홈페이지

<그림 2.4> 미국 캘리포니아의 Farm Link 홈페이지에서 Land Seeker 등록

## 유럽의 신규 취농진입자에 대한 지원정책

## ■ 2014년~2020년 공동농업정책(CAP)에서의 청년직불금

- (1축) 청년농업인을 위한 추가 직불금은 1축의 핵심
- (2축) 18세~40세 미만의 영농경력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2축의 영농정착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직불금 제공
- 청년직불금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적 25~90ha(※토지, 가축 구입할 수 없음)

## ■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2014~2020)

- 농부들을 협력관계로 연결하고, 농지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시작
- 28개 회원국에 118개의 농촌개발프로그램
- 젊은 농업인의 농지 접근·이동성, 승계계획·상속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개발프로그램 하에서 젊은 농가와 노령 농가간의 매칭 서비스 촉진, 국가 또는 지역기구를 위한 자금 사용

## ■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2014~2020)의 농지 이양(Land mobility)

- 계약서는 융통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변호사 및 **Farm Mobility Program 매니저**와 함께 당사자 모두에게 적합한 것 제안
- 모든 합의에는 **노동, 가축, 토지, 자본 또는 창고의 조합 고려**
- 사업체의 이익은 누가 투입했는지에 따라 파트너간에 나뉘게 됨.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익의 25%)

### **Ⅲ. 청년창업농 선정 농가의 특징**

## 3.1

# 청년창업농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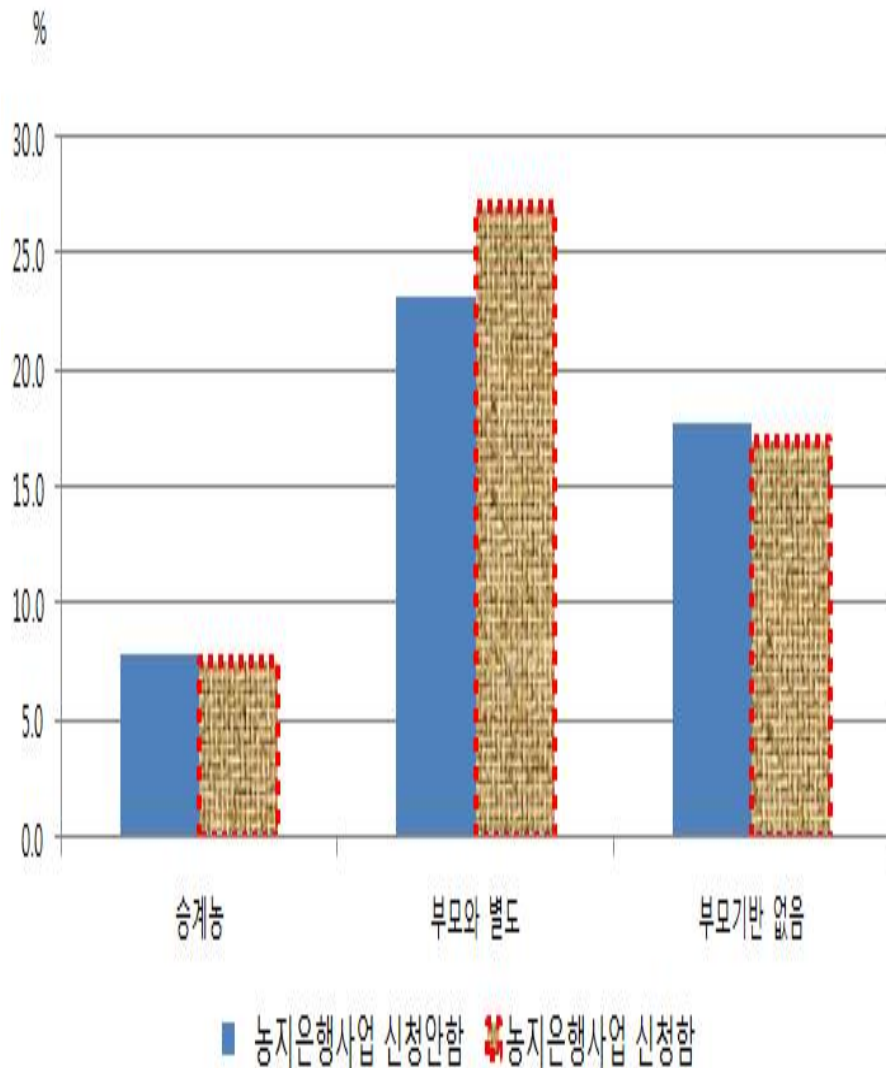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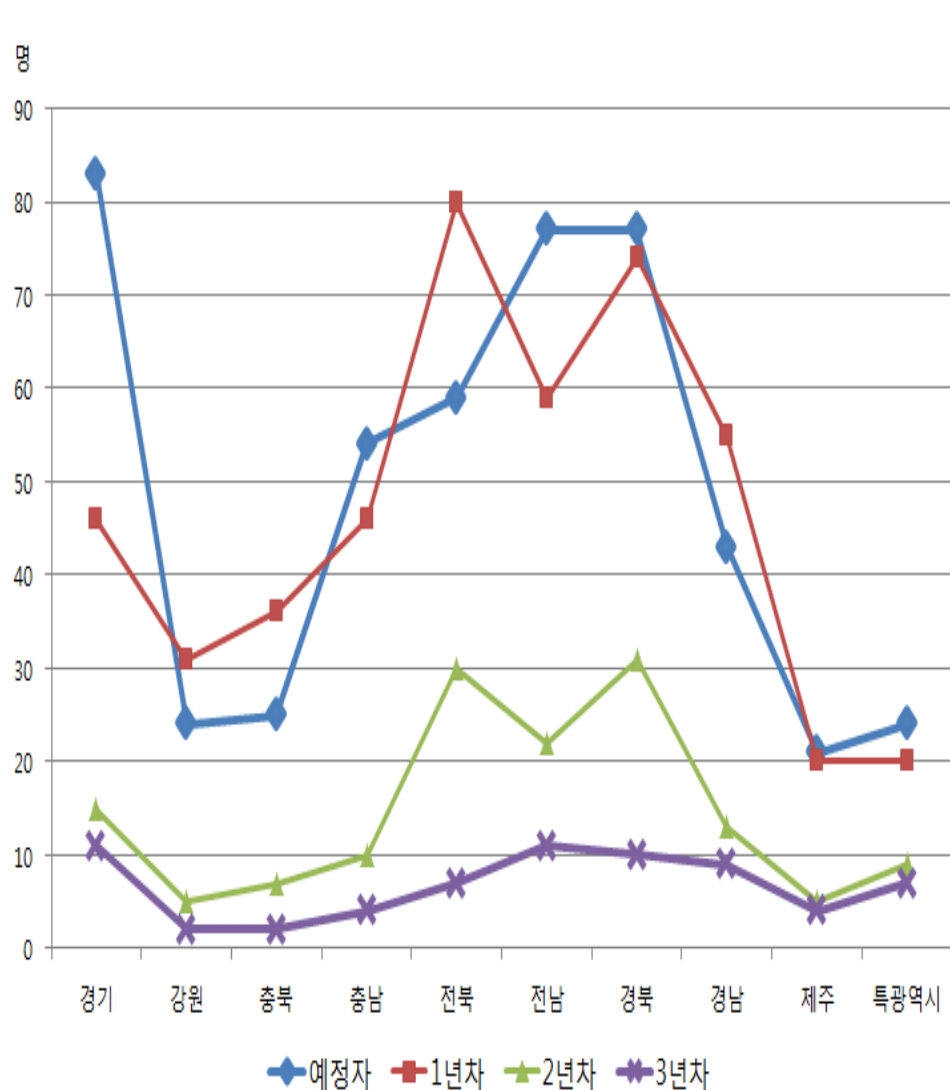
## 청년창업농 영농계획서 분석

### 정부의 청년창업농 영농계획서 요약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청년창업농은 3,326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이 2.8%. 경북 192명, 전북, 전남, 경기 순으로 많음
- 영농경력별: 창업 예정자 502명(43.0%), 독립경영 1년차 452명(38.7%), 2년차 144명(12.3%), 3년차 70명(6.0%)
- 비농업계 졸업생 773명(66.2%)
- 귀농인이 838명으로 재촌 청년 330명의 2.5배 수준
- 성별로 보면 남성이 968명이고 여성은 200명
- 배우자와 영농창업을 하려는(창업농 포함) 청년농업인은 308명
- 영농기반의 유형
  - ✓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 청년이 587명
  - ✓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 청년이 188명
  - ✓ 부모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청년 스스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은 393명
- 주 생산 품목
  - ✓ 채소류 26.8%, 과수류 15.8%, 축산 9.6%, 특용작물 8.1%, 식량작물 6.8%, 화훼류 3.3% 순
  - ✓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이 10.4%, 기타 품목 복합경영 19.3%

### 3.1

## 청년창업농 선정 이전의 영농규모



<그림 3.1> 독립영농기간에 따른 지역별 청년창업농 선정 현황

<그림 3.2> 영농기반 구축 방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신청 비중



## 3.1

## 청년창업농 선정 이전의 영농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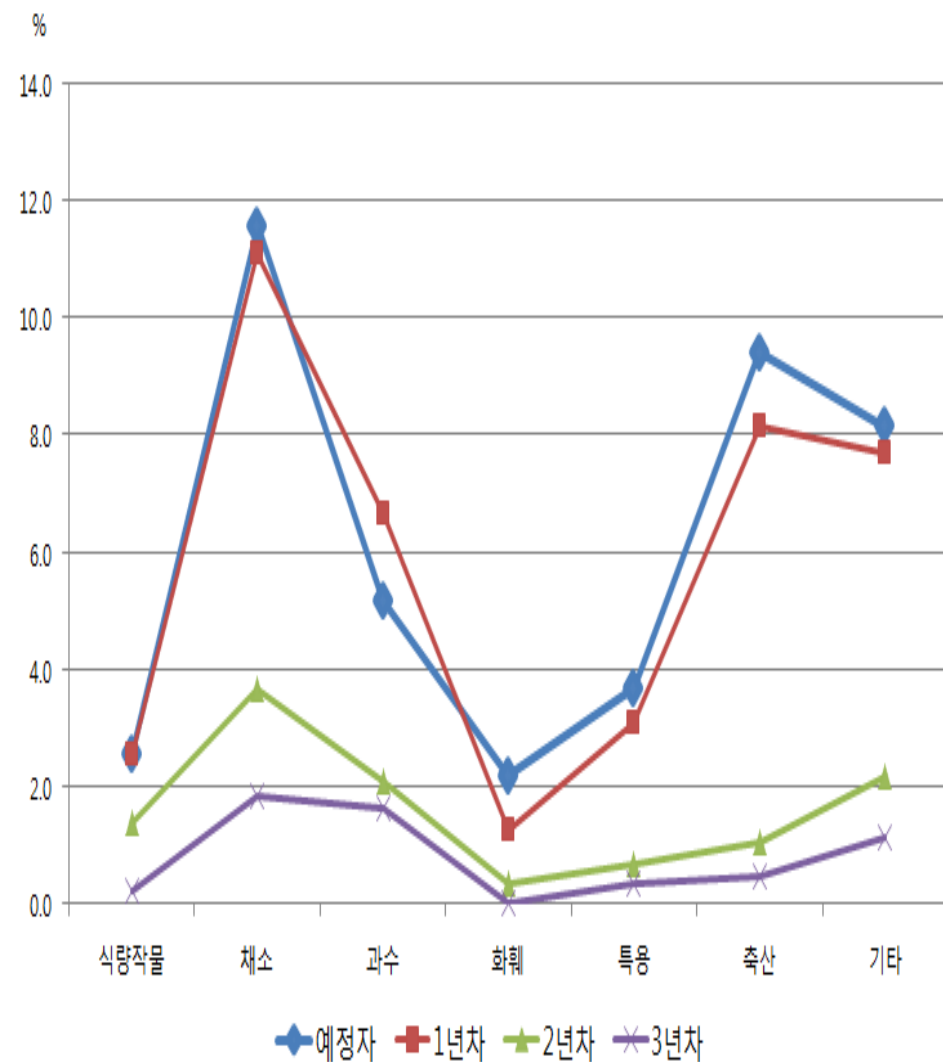
구분		현재 영농 규모 (ha)	5년 후 논 수요 면적 (ha)	5년 후 밭 수요 면적 (ha)
5년 후 채소재배 의향 청년창업농		0.974 (0.338)	3.214 (1.315)	2.070 (0.649)
영농기반 구축 유형	부모로부터 승계	0.366 (0.162)	0.247 (0.000)	1.292 (0.000)
	부모와 별도기반마련	0.540 (0.208)	2.377 (0.000)	1.506 (0.000)
	귀농하여 창업	0.648 (0.169)	3.484 (0.000)	1.471 (0.000)
독립 영농 기간	예정자	0.517 (0.000)	2.258 (0.000)	1.429 (0.000)
	1년	0.613 (0.302)	3.129 (0.000)	1.791 (0.000)
	2년	0.886 (0.318)	3.326 (0.000)	2.228 (0.000)
	3년	0.818 (0.457)	4.872 (0.000)	1.545 (0.000)
농지은행 사업	신청하지 않음	0.903 (0.320)	2.257 (0.000)	1.531 (0.000)
	신청함	0.765 (0.380)	5.276 (0.686)	2.565 (0.318)

주 : ( )은 중앙값(me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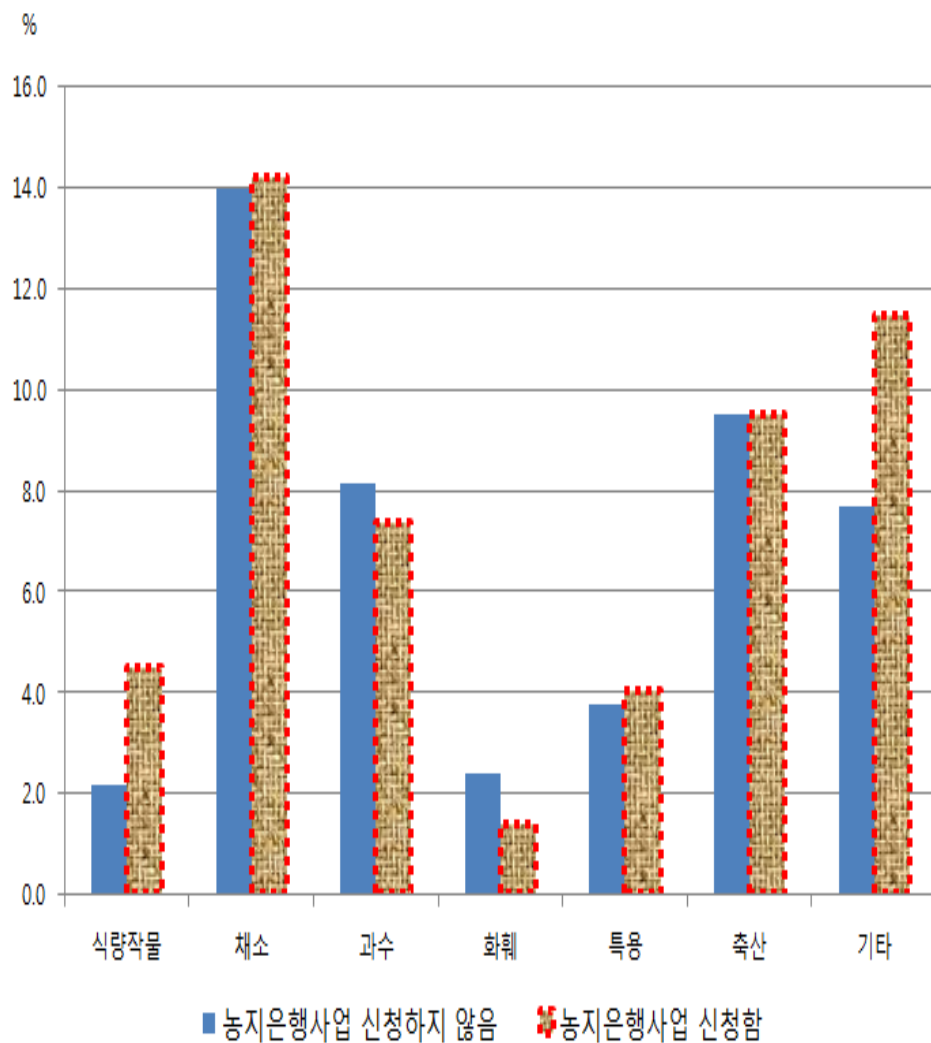
&lt;표 3.1&gt; 영농계획서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농 평균 영농 규모

### 3.1

## 청년창업농 선정 이전의 영농규모



<그림 3.3> 독립영농기간별 5년 후 재배작목 의향



<그림 3.4> 향후 재배작목 의향별 농지은행사업 신청 유무

## 3.1

### 청년창업농 선정 이전의 영농규모

#### 청년창업농 영농계획서 분석이 주는 시사점

- 2018년 **1차로 선정된 청년창업농 52.1%가 품목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 5년 후에도 **32.1%의 375명의** 청년창업농들이 품목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 청년창업농의 경영규모는 **현재 585ha에서 5년 후 1,743ha로 3배 증가하였음**
  - 논 939.8ha(53.9%), 밭 544.4ha(31.2%), 과수 192.3ha(11.0%), 목초지 66.5ha(3.8%)
  - 식량작물 585.9ha(33.6%), 채소 362ha(20.8%), 축산 259.7ha(14.9%), 과수 244.3ha(14.0%),  
특용작물 111.8ha(6.4%)로 조사되어 **향후 농지의 수요는 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됨**
- **5년 후 호당 면적**
  - 식량작물 5.86ha, 채소 1.40ha, 과수 1.61ha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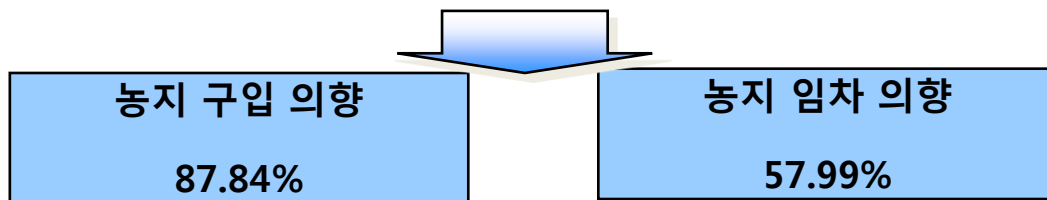
###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농지 확보 방법

농지 확보 방법	명	농지 확보 방법	명
전부 부모님께 물려받음	87명(9.12%)	스스로 농지 구입	300명(31.45%)
일부는 부모님께 물려받고, 일부는 자가 구입	93명(9.75%)	전부 임차	209명(21.91%)
일부는 부모님께 물려받고, 일부는 임차	128명(13.41%)	일부 자가 구입, 일부 임차	47명(4.93%)
일부는 부모님께 물려받고, 일부는 자가 구입, 일부는 임차	56명(5.87%)	기타	34명(3.56%)

<표 3.2> 청년창업농의 농지 확보 방법

농지 구입		농지 임차	
믿을 수 있음	236명(24.63%)	믿을 수 있음	236명(24.63%)
적당한 구입가격	122명(12.73%)	장기간 임차 여부	161명(16.81%)
농지 구입시 협상 여부	132명(13.78%)	저렴한 임차료	71명(7.41%)
좋은 토질	74명(7.72%)	재임대 여부	39명(5.24%)
임차해 본 경험	70명(7.31%)	임차 후 농지 구입 여부	97명(13.04%)
기타	324명(33.82%)	기타	113명(15.19%)

<표 3.3> 농지 구입 및 농지 임차 시 고려하는 요인



## 3.2

###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농지 확보 방법

주요 재배 작목	명	주요 재배 작목	명
아직 계획 없음	2 (0.19%)	시설 밭작물 재배	338 (31.18%)
논에서 논벼만 재배	143 (13.24%)	과수	229 (20.61%)
논에서 타작물 재배	206 (19.06%)	축산	211 (19.52%)
노지 밭작물 재배	286 (26.09%)	기타	180 (16.68%)

<표 3.4> 청년창업농의 올해 주요 재배 예정 작목 (2018년 4월 조사 결과)

논에서 타작물 재배가 가능한 생산기반 여건 정비 필요

Ex. 논밭 범용화

## **IV. 청년창업농의 농지 확보 방법과 이용실태**

## 4.1

## “왜” 면담을 통한 청년창업농 영농실태 파악이 필요한가?

## 양적분석 + 질적분석 (심층면담)

- 구조화된 설문지는 청년창업농의 영농실태 그 현상만을 파악
-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
- 권역별 집합교육에서 청년창업농과 라포(rapport)형성
- 소규모 집단인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실태 및 농지에 대해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분석 실시

단위 : 명,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 광역시	합계
선정자	155 (13.3)	62 (5.3)	62 (5.3)	114 (9.8)	176 (15.1)	169 (14.5)	192 (16.4)	111 (9.5)	50 (4.3)	77 (6.6)	1,168 (100.0)
면담자	12	6	7	12	15	10	10	8	9	11	100

&lt;표 4.1&gt; 청년창업농 지역별 면담자 분포

## 4.2

##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영농특징 분석 결과

독립경영기간별		영농 시작 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연도	
예정	24명	예정(영농경험 없음)	2명	없음	12명
1년차	54명	1년차(2018년)	12명	1년차(2018년)	23명
		2년차(2017년)	30명	2년차(2017년)	35명
2년차	11명	3년차(2016년)	25명	3년차(2016년)	22명
3년차	11명	4년차(2015년)	14명	4년차(2015년)	5명
		5년차이상('14년 이전)	17명	5년차이상('14년 이전)	3명
합계	100명	합계	100명	합계	100명

&lt;표 4.2&gt;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영농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연도

농기계 소유 임차 형태		농가수	소유 소형농기계		농가수
전혀 없음		28명	중형 농기계 2대	소유	4명
소형		6명		임차	2명
중형 농기계 1대	소유	40명	중형 농기계 3대	소유	9명
	임차	7명		소유+임차	2명
				임차	2명

&lt;표 4.3&gt;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농기계 보유 실태



##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영농특징 분석 결과



**<그림 4.1> 청년창업농의 영농창업의 동기**

- 가업(영농) 승계 36%, 농업비전 46%, 농업비전 + 가업승계 18%
- 청년창업농은 농산업에 **비전(vision)**을 가지고 창농



**<그림 4.2> 청년창업농의 영농창업 장애요인**

- 농지 확보 자금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
- 청년창업농의 **농산업 진입장벽 제거 방안**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농지 공급**

## 4.3

##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구 분	최초 농지 구입 년도	최초 농지 임차 년도	농지원부 등록 년도
계	100명	100명	100명
없음	46명	31명	23명
1년차(2018년)	8명	21명	20명
2년차(2017년)	23명	24명	26명
3년차(2016년)	14명	13명	19명
4년차(2015년)	3명	8명	6명
5년차 이상(2014년 이전)	6명	3명	6명

&lt;표 4.4&gt;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최초 농지소유 및 임차 연도

구분		경영 농가수(N=95)		호당 경영규모		임차지율
		소유	임차	소유	임차	
평균		55	70	0.41	0.71	63.0
농지은행지원신청	있음	24	35	0.53	0.91	63.4
	없음	31	35	0.33	0.56	62.7
농지은행이용경험	있음	18	26	0.62	1.28	67.4
	없음	37	44	0.33	0.46	58.4

&lt;표 4.5&gt;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농지은행사업 이용 유무에 따른 경영규모 비교

## 4.3 심층면담 청년창업농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논 이용	계	
	농가수	평균면적
식량작물	20	2.14
벼	14	2.61
논 타작물	5	1.22
동계작물	1	0.21
채소	2	1.70
시설채소	20	0.51
과수	2	1.98
특용작물	5	0.67
화훼	1	0.13
축산	11	0.70
합계	61	1.18

<표 4.6> 심층면담한 청년창업농의 논 이용 실태

구분	계	
	농가수	평균면적
식량작물	10	0.99
서류	4	0.93
잡곡	6	1.02
시설채소	12	0.48
과수	5	1.54
특용작물	2	1.40
화훼	1	0.23
축산	5	0.22
합계	35	0.75

<표 4.7> 심층면담한 청년창업농의 밭 이용 실태

- 논에서 논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시설채소 재배가 많음
- ① 논에서 타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범용화 시설 구축 필요
- ② 청년창업농의 농지수요에 맞는 농지 공급 필요

- 밭에서는 시설채소 및 식량작물 재배가 많음
- 농지은행사업의 지원 농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완화 필요

## 4.4

## 면담한 청년창업농의 농지 확대 계획

구 분	농가수(명)	비율(%)
계	103	100.0
<b>농지가 부족</b>	<b>40</b>	<b>38.8</b>
농지 조건이 맞지 않음	6	5.8
비싼 농지 가격	3	2.9
임차 시 논 타작물 조건	1	1.0
농지 지원 규모의 제한	1	1.0
생애 첫 농지구입에 영농경력 요구	1	1.0
임차 시 재배 작기가 맞지 않음	1	1.0
임차 시 시설 설치 제한	2	1.9
지원면적 제한	1	1.0
낮은 지원금	1	1.0
없다	1	1.0
잘 모르겠음	45	43.7

&lt;표 4.8&gt;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확보시 애로사항(중복응답)

- 농지은행사업의 농지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
- ① 농지은행사업에서 많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필요
- ② 매입한 농지에 **논밭 범용화 시설 정비** 필요

구분	농가수 비율		
	도시근교	중산간	평야
매입+임차	22.2	27.5	39.4
<b>매입만</b>	<b>48.1</b>	32.5	27.3
임차만	3.7	15.0	21.2
의향없음	25.9	25.0	12.1
총합계	100.0	100.0	100.0

&lt;표 4.9&gt; 지대별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확보 계획

- 3년 이내 “청년창업농 83.1%”는 농지매입 희망
- 3년 이내 “청년창업농의 93.2%”는 농지임차 희망
- ① **영농경력에 따른 농지매입 지원 제한 검토 필요**
- ② 도시화 진전에 따라 **관리지역을** 농지은행사업 **대상지로 포함** 필요

## **V. 청년창업농 농촌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농지지원 개선방안**

##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비효율적인 농지공급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한계점 (농지)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과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가?

✓ 도시근로자 소득 보장가능한가?

2. 향후 5년 동안 농지매입 비축량 **10,617ha 더 확보**할 수 있는가?

✓ 기존 5년에 비해 약 3.4배 농지물량 확보 가능한가?

• (정부) 농지매입 비축량 2010년~2016년 4,383ha ⇒ 2022년까지 15,000ha로 확대

3. 청년창업농 또는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비중을 25%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

✓ 20대~30대 청년농업인 비중은 전체 농가의 10% 미만

✓ 농지은행사업의 농지물량을 이들에게 25% 집중 지원시 세대간 농지 갈등 초래?

##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비효율적인 농지공급

### 2.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으로 “영농정착이 가능할까?

- 제도상의 한계점 : 농지지원 공급 물량 부족

### 3. 지역별 영농환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획일적인 지원가능한가?

- 제도상의 한계점 : 농지 확보 단가(예산)

### 4.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정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에 기여하는가?

- 제도상의 한계점 : ICT 기반 선제적인 농지수요 파악

### 5. 청년창업농의 농지수요에 맞는 농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

- 제도상의 한계점 : 농지수급의 불균형(mismatching)
- ✓ 비농업지역 농지수요, 농지지원 기간, 농지 지목 등의 농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5.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지원 개선 방안

### “효율적인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지원 개선 방향(frame)

■ “효율”은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상대적인 비율,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목적 달성(1만 명 육성)을 위해서는 농지의 적시·적재 지원(공급) 필요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농지지원 제도	청년창업농의 농지수요
지원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매입 : 영농경력 2년 초과시 1ha 이내</li> <li>• 농임차농지 2ha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선정 후 2년간 경영면적 확대 의향이 가장 많음</li> </ul>
농지 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 &gt; 밭</li> <li>• 논 : 5년간 타작물 재배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에서 타작물 재배수요 &gt; 논에서 논벼 재배수요</li> </ul>
지원 농지 법률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진흥지역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수요</li> </ul>
경영주 농지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품목, 지대 등에 따른 다양한 농지 확보 선호</li> </ul>



## 5.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지원 개선 방안

### <농지매입대상 농지에 관리지역 포함>

- 현재와 같이 약 1ha 남짓에 불과한 청년창업농의 농지규모로는 효율적인 경영의 한계
- **48%의 청년창업농은**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지원(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하지 못함
- 농지은행사업의 “부족한 농지”와 “(영농)조건이 맞지 않는 농지”는 농지 확보의 애로사항



- 농지은행사업의 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농지 공급물량 부족 심각 가속화
  - ✓ 농업진흥지역 면적 2000년 919천ha⇒ 2016년 780천ha
-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약 87.1%는 “논”으로 청년창업농의 다양한 영농활동 수요 대응 한계
- **관리지역**내 농지를 농지은행사업의 매입대상 농지로 포함시켜,  
**향후 도시화 진전과 영농 노하우 축적되는 청년창업농의 농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일본의 “**인력·농지플랜**”처럼 농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농지 투기 차단

### »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높은 경쟁률』

1. 과연 이들이 향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농도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원활하게 농산업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기반 지원 방원 모색 필요
2. 마을을 유지시킬 것인가?, 소멸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 도출 필요
  -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은 곧 한계마을 등장 우려
  - 하지만 농촌 지역내에서 스스로 인력 재생산은 어려울 수 있음
  - 만약 “마을”을 유지할 것이라면 젊은 인력의 적극적인 유입이 필요함

⇒ 단기적인 경제적 유인책과 장기적인 마을 발전 비전 공유 필요

**감사합니다 !**